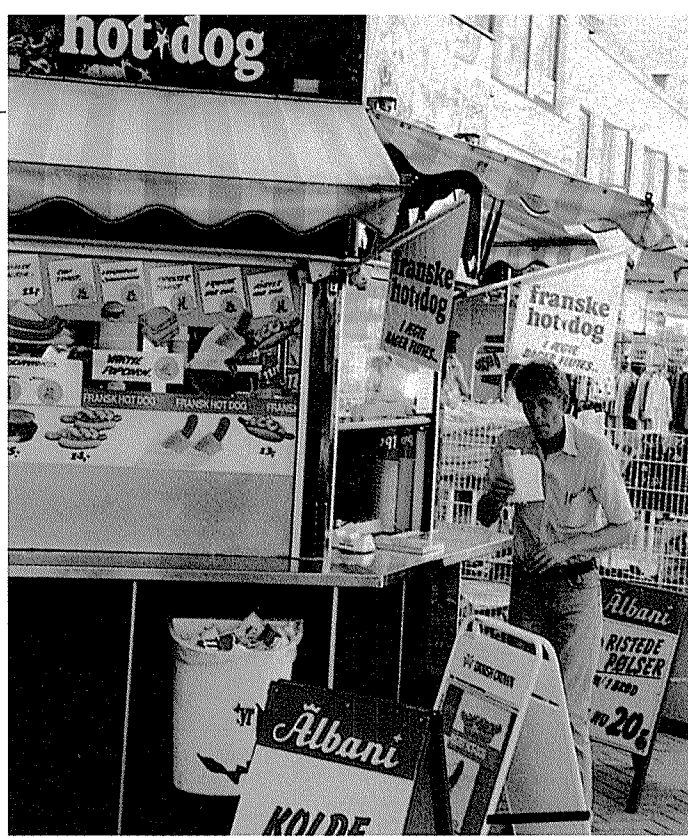


해외업계동향

덴마크에서 덴마크 전통 음식을 먹기란 그리 수월하지 않다. 피자, 햄버거 등 미국의 패스트푸드에 예외 없이 덴마크에서도 그 위력을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버거킹, 맥도널드 등 '앵글샐'이 공룡의 발자국을 남기며 시장 진입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덴마크 양산 업체들은 제품을 변화시키고 있다. 양산 업체들은 새롭게 형성된 패스트푸드용 제품 시장을 두고 햄버거 빵등을 생산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이 시장에서 맹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가 다나푸드 그룹의 계열사인 파스케브로드사다. 이 회사는 패스트푸드 빵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그룹의 계열사인 헤이팅사가 10%를 점유하고 있다. 덴마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난히 핫도그 간이매장이 많다. 자



덴마크 베이커리 시장에 부는 바람

패스트푸드용 시장을 두고 양산 업계 경쟁 치열

▲ 덴마크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핫도그 간이매장이 많다.

연 핫도그 롤이나 햄버거빵의 수요가 높다. 파스케브로드사는 성수기 때 물량 공급을 위해 하루 30 ~ 40톤의 밀가루를 투입한다.

패스트푸드용 빵에 들어가는 밀가루는 미국밀을 혼합한 백색밀인데 이것이 패스트푸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덴마크 베이커리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 라이브레드(호밀빵)에서 휘트브레드(백색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호밀빵 소비가 매년 1%씩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휘트브레드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런 추세를 읽을 수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듯 호밀빵 양산 업체들은 최근 사업망을 확장하며 휘트브레드 시장에 뛰어들었다. 덴마크의 대표적인 양산 업체인 솔스타드사는 덴마크 양산 후레시브레드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판매품목의 구성 비율을 보면 호밀빵이 48%, 휘트브레드가 33% 그리고 냉동제품이 19%인데 케이터링 업체에 공급하는 냉동 제품과 패스트푸드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호밀빵 업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인하를 가져왔다. 80년대 중반과는 달리 가격이 자유화 되었기 때문에 업체간에 가격 인하 경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입은 곳은 일반제과점이다. 현재 덴마크에는 일반제과점이 1,100개 있다. 그러나 이 숫자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양산 업체들이 이윤보다는 시장 점유 경쟁에 목을 매고 있어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고 일반제과점들은 입을 모은다. 또한 구매 패턴이 슈퍼마켓쪽으로 흐르고 양산 업체들이 전국적인 배송망을 갖추고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일반제과점의 어려움은 정도를 더하고 있다.

기술 인력의 문제는 덴마크도 예외가 아니다. 냉동제품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비록 아직까지는 냉동제품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필요한 제품의 기술을 갖춘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 경우 냉동제품을 취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덴마크 업계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현재 케이터링 업체를 위주로 냉동제품의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 가게에서도 취급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다나푸드 그룹 계열의 헤이팅사는 냉동제품으로 빵 70%, 비스킷 20%, 페이스트리 20%를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는 신제품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도 좋아할 수 있도록 호밀과 백색밀을 혼합한 '호밀롤'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한편 솔스타드사는 다나푸드 그룹이 휩쓸고 있는 햄버거빵, 핫도그를 생산하지 않는 대신 냉동롤과 냉동페이스트리 분야에서 전체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를 위해 지난 5년간 냉동제품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왔다. 솔스타드사는 냉동제품의 대부분을 케이터링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를 대비, 슈퍼마켓의 인스��어 베이커리로 판매처를 넓힐 계획이다.

패스트푸드가 덴마크에서 분명한 '실체'로 떠오르면서 덴마크 베이커리 시장은 새로운 흐름을 타고 있다. 패스트푸드용 빵의 수요가 늘면서 백색밀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는 전체 제품에도 영향을 끼친다. 호밀빵이 물러가고 백색밀을 이용한 휘트브레드가 주력 제품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냉동제품도 이 흐름을 타고 비중을 높이고 있다. 패스트푸드가 '빠르게' 덴마크 베이커리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